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8년만에 개원

정읍 황토현전적지에 9만평 규모
324억 들여 2014년부터 조성
오늘 128주년 기념식도 열려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과 함께 열린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을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정부가 주최해 왔다.

올해 기념식은 '하늘을 여는 빛, 새로운 길을 잇다'란 주제로 열린다.

황토현 승전고를 상징하는 대북 공연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김정기 작가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장면을 그려낸 영상으로 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린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4명과 천도교, 기념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한다.

또 국악인 송소희씨와 청소년 합창단의 기념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행사 개최지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공원 개원식도 열린다.

정부는 2014년부터 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만1329㎡(약 9만1000평) 규모로 황토현전적지에 공원을 조성했다. 사적295호인 황토현전적지는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기념공원에는 전시관·추모관·연구동 등의 시설과 함께 전국 아흔 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울림의 기둥' 90개가 세워져 있다.

정부와 정읍시는 기념공원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갑오선열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참여자 3694명과 유족 1만2613명을 찾아 유족으로 등록했다. 갑오년 유적으로 확인된 378개소에 대해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유적·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의 읍지 '용성지' 특별전…8월 31일까지

남원시가 남원향토박물관에서 오는 8월31일까지 '남원의 읍지(邑誌) 용성지(龍城誌)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남원의 읍지인 용성지를 통해 만나는 남원'이란 주제로 조선 후기 남원지역의 역사와 문화, 민속, 사회상 등 그 흔적을 되돌아본다.

읍지는 각 읍의 지지(地誌)인 동시에 지방사(地方史)로써 행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돼왔다.

박물관은 남원의 읍지 및 남원인들의 삶의 흔적을 기록한 자료 40여점을 선보인다. 〈사진〉

전시회에서는 '용성지'를 비롯 '용성속지', '운성지' 등 관련 읍지류 및 각종 남원의 역사와 사회상을 기록한 각종 사료 등을 만날 수 있다.

용성지는 현존하는 사찬읍지(私撰邑誌)이자 가장 모범적인 읍지로 손꼽히는 소중한 기록 유산으로 이도, 최여천 등이 1702년(숙종 25) 만들었고, 이후 1752년(영조 28)에 다시 증보됐다.

특히 용성지는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지리지와는 달리 남원의 연혁과 산천, 풍속, 인물, 고적 등 인문지리지로서 다루어야 할 거의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담고 있어 17~18세기 남원은 물론 조선 후기 향촌 사회를 연구하는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서지호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조사에 따르면 임란 이후에 총 1637개의 읍지가 만들어진데 비해 영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58개 정도에 불과할 만큼 '용성지'는 매우 역사성을 지닌 자료"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남원의 역사와 소중한 기록문화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스포츠·레포츠 함께
순창군 실내체육놀이시설
민속마을에 6월 문 연다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순창군 실내체육놀이시설 전경.

순창에 스포츠와 레포츠가 결합된 실내체육놀이시설이 문을 연다.

순창군은 미세먼지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갈수록 실외활동이 제한되면서 실내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체육놀이시설을 오는 6월 개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내체육놀이시설은 민속마을 내 '세대통합놀이문화과학복합센터' 내 1층에 연면적 850㎡의 규모로 조성된다.

'디지털스포츠-1존'에는 성장운동, 체력증진, 다이어트, 치매예방, 행동치료 등에 도움이 되는 실내운동플렛폼이 갖춰진다.

이 곳에서는 피트니스트레이닝, 브레인트레이닝, 헬스게임 등 50여종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각종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드론축구를 체험할 수 있는 드론축구장을 비롯해 아트 클라이밍과 짜릿한 퀵점프도 갖춰진다.

'디지털스포츠-2존'에는 무동력 트레드밀을 활용해 그리스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런닝과 워킹을 즐길 수 있는 런비트 게임이 설치된다.

또 실시간 주행위치 분석 알고리즘으로 뉴욕, 서울 등을 자전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는 물론 알파인스키와 노르딕스키 등도 설치돼 청소년들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어드벤처존'과 클레이사격, 권총사격 등 레저스포츠 공간도 마련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실내체육놀이시설을 발효테마파크 내 푸드사이언스관과 곧 준공되는 미생물뮤지엄, 어린이과학관 등과 연계해 순창을 어린이들의 놀이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군산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보상금 8월 지급

2100여 명에 월 3만~6만원 보상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 지급될 예정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한 군(軍)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결과 1371세대, 2100여명이 신청했다.

이번 보상 신청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부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와 군산시는 이들 피해 지역의 주민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세대별로 산정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또 전입 시기,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80% 이상이 3종으로 평가돼 보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의 소음 평가는 지난 2000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쳐 주간·저녁·야간에 각각 측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종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까지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익산 패션주얼리단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정

익산 패션주얼리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뿌리 기업의 집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38개 뿌리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 공동 활용시설 개선,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구축 및 공동 혁신 활동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국비 2억4000여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억9500만원을 확보했다.

주관 기관인 산업시험연구원은 패션주얼리단지에 입주한 22개 기업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진 촬영, 장소 대여 등 홍보콘텐츠 제작 ▲공동 판촉용 주얼리 샘플 및 판촉물 제작 등 홍보활동 ▲온라인 판매·유통 전문가 마케팅 전문교육 ▲라이브 커머스 교육 및 전시회 참가비 지원 ▲바이어 발굴 등 신규 판로개척 등을 돕는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대형폐기물 편히 내놓으세요"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 운영

고창군이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를 본격 운영한다.

'빼기'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고, 모바일 앱과 온라인을 통해 수거신청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빼기' 앱을 내려 받아 배출 품목을 촬영한 뒤 앱에 사진을 올리면 사물 인식 AI 기능을 통해 견적이 산출되고 수거 장소를 입력한 후 비용을 결제하면 된다.

자동으로 생성된 배출번호를 직접 폐기물에 기재하거나 종이에 써서 붙인 후 약속한 배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 3일 '빼기'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읍·면 담당주무관 및 환경미화원 30여명에게 업무 교육을 하고 홍보물 8000부를 제작·배부하는 등 안정적인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모바일에 익숙지 않은 고령인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정착 시까지 기존의 배출 방식(전화·방문)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광수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장은 "모바일 대형폐기물 배출서비스 '빼기' 도입이 평일 낮에만 처리 가능했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